

사회비교와 주관안녕 : 문화 비교 연구*

장 은 영⁺
성균관대학교

선행연구에서 사회비교의 동기로 제안된 자기향상, 자기평가 및 자기고양동기의 수준이 한국대학생들과 미국대학생들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사회비교의 동기와 그 충족수준이 현재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국내에서 제작된 사회비교의 동기 및 비교동기의 충족수준 척도를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얻었고,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요인구조가 동일인지 확인하였다. 문항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한 변인을 구성하였고, 한국과 미국 자료를 비교하였다. 결과를 보면, 미국대학생들보다 한국대학생들이 자기향상 동기, 자기평가동기 및 자기고양동기 수준이 모두 높았는데, 특히 자기향상동기가 두드러지게 더 높았다. 자기향상동기의 충족수준과 자기평가동기의 충족수준도 한국대학생들에게서 더 높았다. 인생에 대한 만족감이나 삶에 대한 행복감을 반영하는 주관안녕의 경우 한국대학생들은 주로 자기향상동기에 의해서 영향받았지만, 미국대학생들은 주로 자기평가에 의해서 영향받았다.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였고, 제한점을 언급하였다.

주요어 : 사회비교동기, 자기향상동기, 자기평가동기, 자기고양동기, 주관안녕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때로는 남보다 낫다는 생각에 행복해하거나 감사해하기도 하고, 못하다는 생각에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혹은 미처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경험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문화에 따라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선호하는 비교대상이 달라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경험하는 여러 요소들이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문화마다 다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비교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기

그리고 그 동기가 충족된 수준이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에서 다른지 알아보고, 이 동기들을 비롯하여 사회비교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이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에 문화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사회비교의 동기들

Festinger(1954)와 Wills(1981)의 사회비교에 대한 이론들이 제안된 이후로, 사회비교 과정에서 고려되는 비교의 대상은 나와 유사한 사람, 나보다 우월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주로 구분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 이 논문의 미국인 자료는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집되었음(KRF-2005-037-H00015).

이 논문의 한국인 자료는 장은영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일부 추출되었음.

⁺ 교신저자 : 장은영,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전화 : 02) 760-1280, E-mail : jangmean@hanmail.net

각각 유사비교, 상향비교 및 하향비교로 불려왔으며, 각 세 방향의 사회비교는 각기 다른 사회비교의 동기와 관련 된다고 알려져 왔다. 예를 들어 상향비교는 자기를 향상 시키고자하는 동기로 촉발되고, 유사비교는 자기에 대해 서 정확히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촉발되며, 하향비교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거나 회복하려는 마음에서 촉발된 다(Talyor, Wayment, & Carillo, 1993). 이 각각은 자기 향상동기, 자기평가동기 및 자기고양동기라고 주로 불려 왔으며, 한국에서 이 세 가지 동기를 측정하는 척도도 개발된 바 있다(한덕웅, 장은영, 2003).

이러한 사회비교의 동기에 연구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각 비교동기의 개인별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Gibbons와 Buunk(1999)는 미국인과 네덜란드인을 대상으로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 비교 경향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척도(INCOM : Iowa Netherlands Comparison Scale)를 개발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마다 비교하는 경향에서 차이가 있고, 이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개인차를 넘어서서 문화에 따라 비교동기의 수준이 달라질까? 사회비교의 여러 동기들이 문화에 따라 그 수준이 다른지 직접 비교하여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 문화간 차이를 다룬 여러 심리학 연구들 중에서 이와 관련되는 연구들은 여러 편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그 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의문 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개인주의-집합주의 문화에 따른 사회비교동기

문화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탐구할 때 각 문화를 일정한 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세상의 다양한 국가와 문화 혹은 집단을 이 틀로 구분하는 이론적 근거는 Hofstede (1980)와 Triandis(1989)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후로 이와 같은 방식이 이분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와 집합주의 문화로 구분하는 방식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각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문화로부터 자료를 얻었는데, 이 두 문화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각각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문화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Hofstede(1980)와 Triandis(1989)에 의하면 개인

주의 문화에서는 한 개인은 집단 속의 개별적인 개체로써 간주된다. 또한 집단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목표가 우선시되며, 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의 규범보다는 그 사람이 지닌 태도나 선호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한 개인은 집단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상호의존적인 개체로써 간주된다. 또한 개인의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가 우선시되며, 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지닌 태도보다는 그 사회의 규범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집합주의 문화에서 자기개념은 개인주의 문화보다 상호의존적이고 집합적이며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고 알려져 왔다. 따라서 집합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상황에서 자신의 역할과 대인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므로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보다 사회비교를 더 추구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지지되었다(White & Lehman, 2005). 특히 한 연구(White & Lehman, 2005의 연구 1)는 유럽계 캐나다인들보다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이 사회비교를 전반적으로 더 선호하고, 특히 하향비교보다 상향비교를 더 추구하는 점을 보였다.

다만 이 연구(White & Lehman, 2005의 연구 1)는 집합주의 문화에서 사회비교, 특히 상향비교를 추구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점은 알려주지만, 구체적인 사회비교의 동기가 문화별로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없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 연구(White & Lehman, 2005의 연구 2)에서는 유럽계 캐나다인과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에게 낯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나서 수행이 우수했거나 저조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자세히 보고 싶은 검사의 개수를 0부터 7 중 하나를 골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에서 유럽계 캐나다인들은 자신의 수행이 우수하였던 저조하였던 보고 싶어 한 검사의 개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에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은 우수하였을 때보다 저조하였을 때 보고 싶어 한 검사의 개수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 이외에도 북미인들은 실패한 과제보다는 성공한 과제를 이후에 더 하고 싶어 하지만, 일본인들은 성공한 과제보다 실패한 과제를 이후에 더 하고 싶어 한 점을 보인 연구도 있다 (Heine et al., 2001).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아시아계 혹은 일본인들은 집합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써, 어떤 과제에 실패하면 그 과제에 더욱 매달리고, 자신이 우수할 때보다 저조할 때에 사회비교하는 행동의 빈도도 높아진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Heine & Lehman, 1999; Heine et al., 2001; White & Lehman, 2005의 연구 2)은 집합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기향상의 동기가 더 잘 작동하는데, 이는 집합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집단의 높은 기준, 목표 혹은 규준에 도달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로 인해서 실패경험은 일정한 기준이나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자 하도록 만들고 그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도록 유발시킨다. 그리고 이는 다시 사회비교를 추구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동기가 작동하게 만든다.

또한 한 연구(Heine et al., 2001)는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북미인들은 성공이 예상되는 과제를 더 선호하는 점을 보였다. 이를 연구자들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존심을 방어하거나 고양시키려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이 예상되는 과제를 더 선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보면,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자기향상의 동기가 주로 작동하고,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기고양의 동기가 주로 작동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다양한 비교동기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여, 각 동기들의 수준이 문화나 국가마다 다른지 직접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향상의 동기에 더해 자기평가 및 자기고양의 동기를 개인주의 문화에 속하는 미국과 집합주의 문화에 속하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하여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사회비교의 동기가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현재까지 사회비교에서 나타나는 문화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들은 각 문화별로 더 높게 나타나는 비교의 방향이나 사회비교의 동기에 초점을 두어왔다. 반면에 각 문화에서 사회비교의 동기가 행복감이나 삶의 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다.

물론 선행연구 중 비교의 방향이 삶의 질이나 만성질병에 대처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들은 많다. 이 연구들 중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자신보

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과 그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인 연구(Beaumont & Kenealy, 2004)도 있고, 만성질병을 지닌 환자들이 자신보다 질병에 더욱 대처를 못하는 대상과 비교하면 정서나 자존감에서 이득을 얻는 점을 보인 연구도 있다(Buunk, Collins, Taylor, VanYperen, & Dakof, 1990; Helgeson & Taylor, 1993). 또한 만성질병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보다 질병에 대처를 못하는 사람보다 더 잘 대처하는 대상을 선호하는 점을 보인 연구도 있다(Taylor, Aspinwall, Guiliano, Dakof, & Reardon, 1993; Van der Zee, Oldersma, Buunk, & Bos, 1998).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상향비교, 유사비교 및 하향비교 중 무엇이 삶의 질이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유발된 사회비교의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비교대상이 선호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을 때에는 하향비교가 선호되고, 자기를 향상시키고 싶을 때에는 상향비교가 선호되었다. 그리고 동기에 적합한 사회비교는 정서나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자신에게 우세한 동기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대상과 비교하여 실제 그 동기를 적절히 충족시키는 사람이 정서나 삶의 질에서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속한 문화의 영향으로 특정한 사회비교 동기가 더 높다면, 그 동기가 잘 충족되는 사람이 그 문화에 더 잘 적응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집합주의 문화에서 자기향상의 동기가 더 높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준이나 가치를 쫓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면, 이 자기향상의 동기가 잘 작동하거나 잘 충족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에 잘 적응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기고양의 동기가 더 높고, 개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려는 경향이 더 높다면, 이 자기고양의 동기가 잘 작동하거나 잘 충족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에 잘 적응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한국과 미국 문화별로 주관안녕에 상대적으로 더 우세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비교의 동기가 다른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한국문화에서는 자기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이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문화에서는 자기고양동기의 충족수준이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덕웅과 장은영(200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 및 미국 대학생들의 자기향상, 자기평가 및 자기고양와 같은 사회비교의 동기 및 충족수준을 측정하고, 각각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하였다. 이에 더해 이와 같은 사회비교의 동기, 충족수준 및 과거 경험이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집합주의 문화의 사람들이 자기향상에 의해서 더욱 동기화되므로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자기향상의 동기가 충족된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안녕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미국 대학생들의 주관안녕은 고양동기의 충족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다.

방 법

조사 대상 및 조사 절차

본 조사는 대한민국 서울의 세 대학교 학생들(2003년 가을과 겨울)과 미국 중부의 한 주립대학교 학생들(2005년 겨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한국 대학생들의 자료는 서울지역 3개 대학의 교양강좌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해당 강좌의 담당 교수가 실시 지침에 따라 응답하도록 설명하였고, 질문지에 응답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조사 내용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한다고 알려주었다. 질문지(부록 3 참조)는 350부 가운데 33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6%이었다. 이 절차를 통해서 회수된 338부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한 1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32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미국 대학생들의 자료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정한 시간에 회의실에서 와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한 회기에 최대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명의 참가자가 모두 도착하거나 혹은 정해진 각 회기의 시작 시간이 되면, 연구가 시작되었다. 먼저 연구자가 실험의 목적과 응답하는 법을 알려주고, 참가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응답을 마치면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질문에 응답한 학생은

모두 205명이었다. 이 205명의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의 자료가 제외되었고, 나머지 196명의 자료 중에서 백인(Caucasian)이 아닌 25명이 제외되어 17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¹⁾

변인과 측정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자들에 의해 먼저 작성되었고, 이중언어가 가능한 두 사람의 심리학자에 의해서 이 척도들이 수정되었으며, 원어민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일부 수정되었다. 대부분의 척도는 한국에서 사용한 척도들을 이와 같은 과정에서 번역되었다. 다만, 주관안녕인지의 경우에 미국 대학생들에게는 Diener, Emons, Larsen 및 Griffin(1985)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한국 대학생들에게는 한덕웅과 표승연(2002)의 주관안녕인지 척도가 실시하였다. 두 척도의 문항 구성이 다르므로, 두 척도에서 의미가 유사한 3문항이 추출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사회비교의 동기

이 척도는 자기향상동기, 자기평가동기 및 자기고양동기를 측정하는 세 하위척도들로 구성되며, 각 비교동기마다 5문항으로 이루어지고,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1에서 5까지)로 응답하게 된다. 한국대학생들에게 실시된 문항과 미국대학생들에게 실시된 문항들은 부록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비교동기의 충족수준

이 척도는 향상동기 충족수준, 평가동기 충족수준 및 고양동기 충족수준을 측정하는 세 하위척도들로 구성되고, 각 비교동기마다 4문항으로 이루어지며,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1에서 5까지)로 응답하게 된다. 한국대학생들에게 실시된 문항과 미국대학생들에게 실시된 문항들은 부록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 제외된 이들은 5명의 흑인, 4명의 히스패닉, 13명의 아시아계 및 그 외 분류되지 않은 3명이었다. 이들은 나머지 196명에 비해서 자기향상동기는 더 높고($M=3.51, t=2.13$), 향상동기의 충족수준도 더 높으며($M=3.28, t=2.83$), 주관안녕인지는 더 낮았다($M=4.32, t=-2.80$).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이들은 코카시안으로 구성된 196명의 자료와 이질적이라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관안녕

이 척도는 주관안녕인지와 주관안녕정서로 구성되었다. 한국대학생들에게 실시된 문항과 미국대학생들에게 실시된 주관안녕인지의 문항들은 부록의 표 3에, 주관안녕정서의 문항들은 부록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통계분석

사회비교의 동기, 비교동기의 충족수준 및 주관안녕의 문항분석을 위해서 Cronbach' α 를 통하여 신뢰도를 구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두 표집에서 각각 알아보았다. 요인분석에서는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고, 2요인 이상인 구조에서는 직각회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정된 요인구조가 자료와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변량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비교의 동기, 비교동기의 충족수준 및 주관안녕이 문화별로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문화별로 사회비교동기에서 비교동기의 충족수준을 거쳐서 주관안녕으로 연결되는 모형을 공분산행렬과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공변량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사회비교의 동기

부록의 표 1에는 한국 및 미국대학생들에게 실시된 문항과 그 문항번호가 제시되어 있다. 두 문화권의 대학생들 모두 부록의 표 1에 제시된 동일한 순서로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자료와 미국자료 모두 고유치 1.0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절한 요인의 수는 3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두 표집에서 모두 세 요인이 추출되었다. 한국자료에서 설명변량이 11.27로 전체변량의 75.12%를 설명하였고, 미국자료에서 설명변량은 10.12로 전체변량의 67.42%를 설명하였다. 한국자료의 각 요인은 순서대로 자기고양동기, 자기향상동기, 자기평가동기로 명명하였고, 미국자료의 요인도 자기고양동기, 자기향상동기, 자기평가동기로 명명하였다. 자기고양동기의 신뢰도 계수는 한국자료에서 $a=.92$ 이고, 미국자료에서는 $a=.90$ 이었다. 자기향상동기의 신뢰도 계수는 한국

자료에서 $a=.91$ 이고, 미국자료에서는 $a=.84$ 이었다. 자기평가동기의 신뢰도 계수는 한국자료에서 $a=.92$ 이고, 미국자료에서는 $a=.87$ 이었다. 이 결과들은 사회비교 동기가 세 요인으로서 안정적 요인 구조를 지니며, 한국과 미국 대학생 표집에서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만족스러움을 나타낸다.

비교동기의 충족수준

부록의 표 2에는 한국 및 미국대학생들에게 실시된 문항과 그 문항번호가 제시되어 있다. 두 문화권의 대학생들 모두 부록의 표 2에 제시된 동일한 순서로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자료와 미국자료에서 모두 고유치 1.0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절한 요인의 수는 2로 나타났다. 다만, 세 번째 요인의 고유치가 한국자료에서 .98이고, 미국자료에서 .91이었으며, 이론상 세요인 구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요인의 수를 3으로 지정하고 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한국자료에서 설명변량이 8.84로 전체변량의 73.69%를 설명하였고, 미국자료에서 설명변량은 8.09로 전체변량의 67.46%를 설명하였다. 한국자료의 각 요인은 순서대로 평가동기의 충족수준, 고양동기의 충족수준, 향상동기의 충족수준으로 명명하였고, 미국자료의 각 요인도 평가동기의 충족수준, 고양동기의 충족수준, 향상동기의 충족수준으로 명명하였다. 고양동기 충족수준의 신뢰도 계수는 한국자료에서 $a=.90$ 이고, 미국자료에서는 $a=.88$ 이었다. 평가동기 충족수준의 신뢰도 계수는 한국자료에서 $a=.91$ 이고, 미국자료에서는 $a=.81$ 이었다. 마지막으로 향상동기 충족수준의 신뢰도 계수는 한국자료에서 $a=.82$ 이고, 미국자료에서는 $a=.76$ 이었다. 이 결과들은 비교동기의 충족수준은 한국과 미국 대학생 표집에서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함을 나타낸다.

주관안녕인지

부록의 표 3에는 한국 및 미국대학생들에게 실시된 주관안녕인지의 문항과 문항번호가 제시되어 있다. 두 문화권의 대학생들 모두 부록의 표 3에 제시된 동일한 순서로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한국자료와 미국자료 모두 고유치 1.0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절한 요인의 수는 1로 나타났다. 한국자료에서 설명변

량이 2.29로 전체변량의 76.69%를 설명하였고, 미국자료에서 설명변량은 2.36으로 전체변량의 78.58%를 설명하였다. 주관안녕인지는 이 3개 문항에 응답한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한국자료에서 $\alpha=.84$ 이고, 미국자료에서는 $\alpha=.86$ 이었다.

주관안녕정서

부록의 표 4에는 한국 및 미국대학생들에게 실시된 주관안녕정서의 문항과 문항번호가 제시되어 있다. 두 문화권의 대학생들 모두 부록의 표 4에 제시된 동일한 순서로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한국자료와 미국자료 모두 고유치 1.0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절한 요인의 수는 1로 나타났다. 한국자료에서 설명변량이 6.51로 전체변량의 65.08%를 설명하였고, 미국자료에서 설명변량은 5.95로 전체변량의 59.53%를 설명하였다. 주관안녕정서는 이 10개 문항에 응답한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한국자료에서 $\alpha=.94$ 이고, 미국자료에서는 $\alpha=.92$ 이었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이 측정하고자 가정한 변인을 실제로 측정해내는지 확인하고자 공변량구조분석모형을 통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분산행렬과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자료와 미국자료 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으로 사용된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자기향상동기, 자기평가동기, 자기고양동기, 향상동기의 충족수준, 평가동기의 충족수준, 고양동기의 충족수준, 주관안녕인지 그리고 주관안녕정서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한국자료에서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는 좋은 편이었다, $\chi^2=2034.93$, $df=938$, $p=.00$, $N=313$, $RMSEA=.06$, $CFI=.95$, $GFI=.78$, $NFI=.91$, $NNFI=.94$.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모두 .54이상이었다. 미국자료에서는 부합도 지수는 한국자료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양호한 편이었다, $\chi^2=1866.95$, $df=936$, $p=.00$, $N=168$, $RMSEA=.07$, $CFI=.92$, $GFI=.67$, $NFI=.85$, $NNFI=.91$.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모두 .37 이상이었다.

한국대학생과 미국대학생들의 사회비교 및 주관안녕

본 연구에서 다룬 변인에서 한국 및 미국 대학생들의

표 1. 한국 및 미국 대학생들의 사회비교와 주관안녕의 평균(표준편차)

변인	한국 표집		미국 표집		t
	M	(SD)	M	(SD)	
자기향상동기	3.65	(.82)	3.14	(.88)	-6.51***
자기평가동기	3.31	(.82)	3.00	(.82)	-4.03***
자기고양동기	2.52	(.93)	2.18	(.87)	-3.95***
향상동기의 충족수준	3.11	(.75)	2.83	(.71)	-3.99***
평가동기의 충족수준	3.06	(.80)	2.88	(.79)	-2.35*
고양동기의 충족수준	2.52	(.82)	2.59	(.82)	.88
주관안녕인지	4.22	(1.18)	5.10	(1.24)	7.75***
주관안녕정서	4.34	(1.29)	5.75	(.88)	14.31***

* $p<.05$, $p<.01$, $p<.001$

평균값을 t 검증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각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t 검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고양동기의 충족수준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한국대학생들이 미국대학생들에 비해서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동기, 순서대로 $M=3.65$, $M=3.14$, $t=-6.51$, $p<.001$, 자기를 정확히 평가하고자 하는 동기, $M=3.31$, $M=3.00$, $t=-4.03$, $p<.001$, 그리고 자존심을 고양하고 방어하려는 동기가, $M=2.52$, $M=2.18$, $t=-3.95$, $p<.001$, 더 높았다. 또한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마음이 충족된 수준, $M=3.11$, $M=2.83$, $t=-3.99$, $p<.001$, 과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충족된 수준, $M=3.06$, $M=2.88$, $t=-2.35$, $p<.05$, 도 더 높았다. 반면에 한국대학생들이 미국대학생들보다 삶에 만족하거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더 낮았다. 구체적으로 한국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낮았고, $M=4.22$, $M=5.10$, $t=7.75$, $p<.001$, 자신의 삶에서 정서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도 더 낮았다, $M=4.34$, $M=5.75$, $t=14.31$, $p<.001$.

한국과 미국대학생들의 주관안녕을 예측하는 구조모형

한국대학생 표집과 미국대학생 표집별로 사회비교의 동기에서 비교동기의 충족수준을 거쳐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공변량구조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이제 각 문화별 모형의 경로계수와 설명변량을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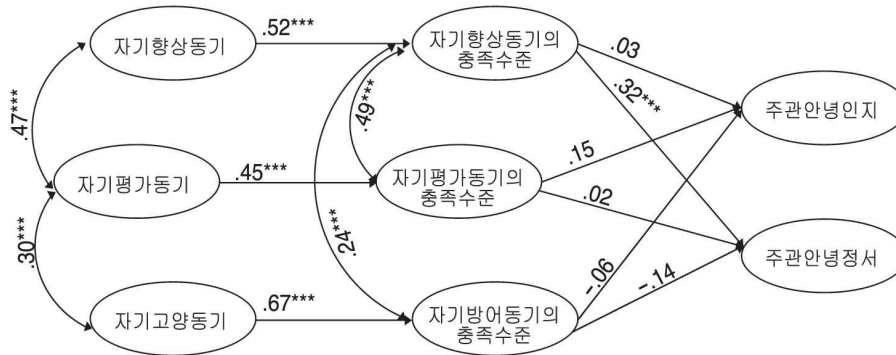


그림 1. 한국대학생들의 주관안녕을 사회비교 요소들로 예측한 구조모형
N=313, *** $p < .001$

한국표집에서 구조모형의 검증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는 양호하였다, $\chi^2 = 1119.89$, $df = 720$, $p < .001$, $N = 313$, $RMSEA = .04$, $CFI = .98$, $GFI = .85$, $NFI = .95$, $NNFI = .98$. 설명변량을 살펴보면, 주관안녕인지의 3%, 주관안녕정서의 10%가 모형에서 가정한 외생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경로계수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을 보면, 자기향상동기는 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을, $\beta = .52$, $t = 7.83$, $p < .001$, 자기평가동기는 평가동기의 충족수준을, $\beta = .45$, $t = 7.91$, $p < .001$, 자기고양동기는 고양동기의 충족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eta = .67$, $t = 9.43$, $p < .001$. 또한 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은 주관안녕정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eta = .32$, $t = 3.91$, $p < .001$.

1119.49, $df = 721$, $p < .001$, $N = 168$, $RMSEA = .06$, $CFI = .96$, $GFI = .75$, $NFI = .90$, $NNFI = .95$. 설명변량을 살펴보면, 주관안녕인지의 5%, 주관안녕정서의 6%가 모형에서 가정한 외생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자기향상동기는 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을, $\beta = .61$, $t = 5.55$, $p < .001$, 자기평가동기는 평가동기의 충족수준을, $\beta = .56$, $t = 5.14$, $p < .001$, 자기고양동기는 고양동기의 충족수준을, $\beta = .49$, $t = 4.30$, $p < .001$,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평가동기의 충족수준은 주관안녕정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eta = .22$, $t = 2.31$, $p < .05$.

논 의

미국표집에서 구조모형의 검증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는 양호하였다, $\chi^2 =$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개발된 사회비교동기 척도를 영어로도 번역하여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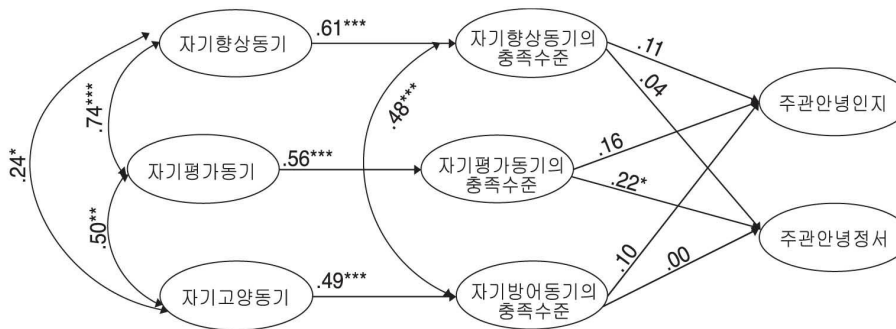


그림 2. 미국대학생들의 주관안녕을 사회비교 요소들로 예측한 구조모형
N=168, * $p < .05$, ** $p < .01$, *** $p < .001$

회비교 동기 수준과 주관안녕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려고 한 점은 다음과 같다: (1)한국과 미국문화에서 자기향상동기, 자기평가동기 및 자기고양동기의 수준이 다른지, (2)두 문화의 주관안녕 수준이 다른지 그리고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비교 요소가 다른지 검증하였다. 결과를 보면, 한국과 미국문화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문화별 사회비교의 동기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자기향상, 자기평가 및 자기고양동기 모두 미국문화보다 한국문화에서 그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각 문화 내에서 보면, 두 문화권에서 모두 자기고양동기보다 자기평가와 자기향상의 동기가 더 높았으며, 한국문화에서는 자기평가보다 자기향상동기가 더욱 높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각 문화에서 모두 전반적으로 자기고양동기보다 자기평가나 자기향상의 동기가 더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들인 점에도 일부 기인할 수도 있겠다. 즉, 자존심을 회복하거나 높이기 보다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을 어떻게 더 개발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참여한 점에도 일부 원인이 있겠다.

또한 미국문화보다 한국문화에서 자기향상의 동기가 상당히 우세했다. 이는 선행연구나 본 연구의 예측과도 일관되는데, 미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이 자기를 개발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인과 비교하고, 그 집단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좋은 비교대상 혹은 도달할 목표로 인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문화에서는 전반적으로 비교동기가 높는데, 이는 집합주의 문화에 속하는 다른 아시아권 참가자들이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할 것으로 간주된 참가자들보다 사회비교 경향이 더 높았던 점을 보인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White & Lehman, 2005). 즉, 한국도 집합주의 문화에 속하는 국가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 문화에서 한 개인은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보다 집단의 목표나 집단에서 선호되는 것 혹은 사회의 규범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유용한 정보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타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내야 하며, 이는 사회비교동기를 전체적으로 높게 유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문화별 주관안녕과 자기고양동기

본 연구에서는 두 문화권에서 주관안녕 수준도 측정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비교의 요소도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면,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생들보다 자신의 삶에 인지적으로 덜 만족하였고, 행복감도 덜 경험하였다. 그리고 한국문화에서는 이러한 주관안녕에 자기향상의 동기가 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문화에서는 자기평가의 동기가 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안녕의 수준이 두 문화권에서 달리 나타난 점을 해석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얻은 문화차이는 반응경향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수 있고, 자기평가나 자기를 고양할 수 있는 기회에서 문화별로 달리 반응하는 점을 보인 연구(Heine et al., 2001)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보면, 동양인에 비해서 서구인들이 전반적으로 자기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여 반응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관안녕의 측정치에서 문화차이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비교의 요소에서 문화간 차이가 나타난 점은 관심을 기울일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서는 자기향상동기가, 미국문화에서는 자기고양동기가 주관안녕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미국문화에서는 이러한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서 자기고양동기의 수준은 한국과 미국 문화에서 모두 낮은 편이었으며, 오히려 한국문화에서 자기고양동기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따라서 한국문화에서 자기향상동기가 주관안녕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문화를 집합주의 문화로 가정하고 예상한 결과와 일관된다. 그러나 미국문화에서 자기평가동기가 주관안녕에 미치는 효과는 미국문화를 개인주의 문화로 가정하고 예상한 결과와 비일관된다.

이러한 점을 보면, 본래 예측과 달리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자기고양동기의 역할이 상당히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가능성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자기고양동기 척도는 '고양'의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지만, 자존심을 높이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자존심을 높이려는 자기고양의 경향은 실패나 위협을 경험한 상황에서 우

세해졌다(장은영, 2004). 이에 근거해서 보면, 자기고양동기는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우세해질 수 있으나, 일상에서의 그 수준은 대체로 낮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들에게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자기고양동기의 수준은 낮으며, 이로 인해 충족수준도 낮고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력도 작았을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기고양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자기평가동기나 자기향상동기가 동시에 포함되면 그 힘이 약해진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자기고양동기에서 한국과 미국문화간 차이가 없었던 점을 보면, 그 설명력이 약하다.

하지만, 자기평가동기의 충족수준이 주관안녕에 효과를 미친 점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데, 이는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다고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대학생들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동기가 충족될수록 삶에서 정서적으로 만족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사회비교이론의 관점과 관련하여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집합적인 목표나 기준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므로, 자신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준이나 목표에 대한 정보가 집합주의 문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감이나 능력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판단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이십대의 대학생들은 자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경험하며, 이는 자기를 정확히 평가하고 알고자 하는 동기가 충족된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만족하게 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의 과제

본 연구는 사회비교의 동기와 그 충족수준을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에게 측정하여, 한국문화에서 사회비교의 동기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한국대학생들의 주관안녕에는 자기향상동기가 미국대학생들의 주관안녕에는 자기평가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혹은 제한점을 지닌다 : 첫째, 사회비교의 동기와 충족수준 척도는 한국에서 전국표집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대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척도를 실시하기 위해 이중언어자에 의해서 번역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국표집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하지는 못했고, 본 연구에서 얻은 문항분석 결과로만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사회비교동기의 충족수준은 통상적인 문항의 개수를 결정하는 규칙에 근거하면 2요인 구조로 나타났다. 물론 국내와 이론 및 경험연구(한덕용, 장은영, 2003; Talyor, Wayment, & Carillo, 1993)의 결과와 세 번째 요인의 고유치가 1에 가까워서 요인을 세 개로 지정하였지만, 미국자료에서 향상동기의 충족수준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표집의 수를 늘리거나 혹은 실시대상을 달리하여 비교동기의 충족수준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과 미국에서 조사연구가 실시된 시점을 보면, 대략 2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이에 더해 실시 시점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2003년 가을과 겨울 사이에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한 학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써, 대학생들의 비교경향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으며,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주관안녕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2005년 겨울에 실시되어서 비교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문화에서 얻어진 사회비교의 동기나 주관안녕의 수준을 비교할 때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문화에서는 주관안녕을 예측할 때에 자기평가동기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했고, 상대적으로 자기고양동기의 영향력은 약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 자기고양동기의 척도를 구성할 때에 협소한 영역의 고양을 다룬 점에도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제한점과 본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들을 장래 연구에서 보완하고 확장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장래 연구를 통해서 다룬 만한 과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더 큰 표집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비교와 관련된 척도들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요소들 중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사회비교와 관련된 요소들과 함께 예측력을 경쟁하도록 분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비교 이외의 요소들과 견주어도 주관안녕에 대한 예측력을 유지하는 사회비

교의 동기가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다. 셋째,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기평가동기가 주관안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반복검증도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 장은영 (2004). 사회비교 동기와 충족수준이 비교대상의 선택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한덕웅 (1994). 한국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1), 20-53.
- 한덕웅, 장은영 (2003). 사회비교가 분노경험, 주관안녕 및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8(1), 85-112.
- 한덕웅, 최훈석, 강혜자, 이경성, 박근석 (1995). 한국 사회문제의 지각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9(1), 99-111.
- 한덕웅, 표승연 (2002). 정서 경험에 따른 주관안녕, 건강 지각 및 신체질병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7(3), 403-427.
- Beaumont, J. G., & Kenealy, P. M. (2004). Quality of life perceptions and social comparisons in healthy old age. *Ageing and Society*, 24, 755-769.
- Buunk, B. P., Collins, R. L., Taylor, S. E., VanYperen, N. W., & Dakof, G. A. (1990). The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 Either direction has its ups and dow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38-1249.
- Diener, E., E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Festinger, L. A.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 117-140.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29-142.
- Heine, S. J., Kitayama, S., Lehman, D. R., Takata, T., Ide, E., Lueng, C., & Matsumoto, H. (2001). Divergent consequ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and North America : An investigation of self-improving motivations and malleabl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99-615.
- Heine, S. J., & Lehman, D. R. (1999). Culture, self-discrepancies, and self-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15-925.
- Helgeson, V. S., & Taylor, S. E. (1993). Evaluative and affiliative comparisons and coping among cardiac pati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1171-1195.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 Sage.
- Taylor, S. E., Aspinwall, L. G., Guiliano, T. L., Dakof, G. A., & Reardon, K. (1993). Storytelling, social comparison, and cop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1171-1195.
- Taylor, S. E., Wayment, H. A., & Carillo, M. (1993). Social comparison,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Eds.), *Motivation & Cognition*. The Guilford Press.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e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Van der Zee, K., Oldersma, F., Buunk, B. P., & Bos, D. (1998). Social comparison preferences among cancer patients as related to neuroticism and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801-810.
- White, K., & Lehman, D. R.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232-242.
- Wills, T. A. (1981). Downward comparison principles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0, 245-271.

Social Comparison and Adjustment in Two Cultures

Eun-Young Jang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cultural differences of self-improvement, self-evaluation and self-enhancement motives exist between Korean and American samples. In addition, the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motives, and fulfillment level of the motives on subjective well-being were also explored. For this purpose, the scales of social comparison motive, fulfillment level of social comparison mo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were developed in Korean, then translated into in English and performed to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Self-improvement, self-evaluation and self-enhancement motives were higher in Koreans than in Americans, especially the level self-improvement in Koreans was the highest. Also, the fulfillment level of self-improvement and self-evaluation were higher and cognitive and emotional well-being were lower in Koreans. In predicting subjective well-being, self-improvement motive had an important role in Korea, whereas self-evaluation motive did in Americans.

Keywords: *social comparison motive; self-improvement motive; self-evaluation motive; self-protection motive; subjective well-being*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4월 8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5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5월 26일

부 록

표 1. 사회비교동기의 각 문항들

번호	한국대학생용 문항	미국대학생용 문항
1	나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유는 자존심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The reason I compare myself with other people is that I don't want to lose my self-esteem.
2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I usually want to compare myself with someone similar to me in order to know accurately who I am.
3	나의 자존심을 잃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한다.	If I could protect my self-esteem, I would try to compare myself with someone inferior to me.
4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한다.	If I could know about myself accurately, I would try to compare myself with other people similar to me.
5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한다.	If I could be better, I would try to compare myself with someone superior to me.
6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한다.	To make an accurate judgment about myself, I would compare myself with other people similar to me.
7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유는 나보다 나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The reason I compare with other people is that I want to be a respectable person.
8	나의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I usually want to compare myself with a person inferior to me in order not to lose my self-esteem.
9	나는 자신이 더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한다.	I compare myself with someone superior to me in order to improve myself.
10	내가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유는 나를 정확히 평가하고 싶기 때문이다.	The reason I compare myself with other people is that I want to evaluate myself accurately.
11	나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한다.	To protect my self-esteem, I would compare myself with someone inferior to me.
12	나는 자기 향상을 위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다.	I compare myself with other people for the sake of my personal development.
13	나는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다.	To enhance my self-esteem, I would compare myself with someone inferior to me.
14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I usually want to compare myself with the person superior to me to become a good person.
15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다.	To find out what kind of person I am, I compare myself with other people similar to me.

표 2. 비교동기의 충족수준의 각 문항들

번호	한국대학생용 문항	미국대학생용 문항
1	나는 자신이 더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The comparison was helpful to improve myself.
2	손상된 내 자존심을 다시 높이고 싶었던 욕구가 충족되었다.	The need to protect my self-esteem was fulfilled.
3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충족되었다.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thers, my need to be a better person was fulfilled.
4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에게 대해서 평가하려는 마음이 충족되었다.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thers, my need to evaluate myself was fulfilled.
5	나는 자존심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The comparison was helpful in protecting my self-esteem.
6	나에 대해서 정확히 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The comparison was helpful in knowing myself accurately.
7	나를 향상시키고 싶었던 욕구가 충족되었다.	The need to develop myself was fulfilled.
8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충족되었다.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thers, the need to defend my self-esteem was fulfilled.
9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I was able to evaluate myself accurately.
10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I was able to be a better person than I was.
11	나의 자존심을 잃지 않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I could enhance my self-esteem.
12	나를 정확히 평가하고 싶었던 욕구가 충족되었다	The need to evaluate myself is fulfilled.

표 3. 주관안녕인지의 각 문항들

번호	한국대학생용 문항	미국대학생용 문항
1	당신이 바라는 이상과 비교하면 현재 당신의 삶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In most ways my life is close to my ideal.
2	현재 당신의 객관적 생활조건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The conditions of my life are excellent.
3	당신은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I am satisfied with my life.

표 4. 주관안녕정서의 각 문항들

번호	한국대학생용 문항	미국대학생용 문항
1	지루하다 - 재미있다	Boring - Interesting
2	비참하다 - 즐겁다	Miserable - Pleasant
3	쓸모없다 - 가치있다	Valueless - Valuable
4	외롭다 - 화목하다	Lonely - Connected
5	공허하다 - 충만하다	Empty - Fulfilled
6	비관적 - 낙관적	Pessimistic - Optimistic
7	보람없다 - 보람있다	Useless - Worthy
8	운이 없다 - 행운이 따른다	Unlucky - Lucky
9	실망스럽다 - 만족스럽다	Disappointing - Satisfactory
10	불행하다 - 행복하다	Unhappy - Happy